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소외계층에 밀반찬 전달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 해바라기봉사단(회장 황의숙)은 14일 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밀반찬을 홀몸어르신, 거동 불편 장애인, 부자 세대 등 150가구에 전달했다. 이날 해바라기봉사단 회원 20여명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무생체, 들깨탕 등의 밀반찬을 만들어 몸이 불편해 음식조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전달하고 안부도 확인했다. 황의숙 완산구해바라기봉사단 회장은 "마스크를 쓰고 조리하기 힘들었지만, 맛있게 밀반찬을 드실 이웃들을 생각하면 봉사하는 시간들이 소중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봉사현장을 찾아 봉사단을 격려하며 "이런 아침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해바라기봉사단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 가는 적극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성기자



삼천도시대학 '효사랑어르신 생신상차림 나눔' 봉사

삼천도시대학협의회·행복나눔보물상차림동조함(회장 허정)은 지난 13일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사랑어르신 생신상차림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삼천도시대학 회원8명은 마을기업인 '삼천미실' 카페에 모여 준비한 재료로 쇠고기지역국과 잡채, 모듬전, 장조림, 김치, 가지무침, 치즈 등 밀반찬 30세트를 정성껏 준비해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관내 독거 어르신들께 전달하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당부했다. 아울러 8월부터는 후원받은 식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삼천2동 무료나눔 '사랑이 꽃피는 냉장고'에도 수시로 기부를 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전주비전대, LINC+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전주비전대학교 LINC+사업단은 14일 '2021년 LINC+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교내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캡스톤디자인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학생 스스로 작품의 설계·기획·제작 전 과정을 경험하는 교육이다. 지난 3월부터 교수 및 협약업체 등 외부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총 51개 작품을 출품 대상은 비롯한 7개 팀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타이머 내장형 차량 신호등은 주행 시 교통신호등의 신호가 인체 비필지 알 수 없어 타이머가 있는 보행자 신호등처럼 운전자가 신호등의 변경지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차량 신호등에 타이머를 내장한 작품이다.

/정은성 기자

부안교육문화회관, 어른을 위한 '그림책 테라피'

부안교육문화회관(관장 조창근)은 16일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인 '내 마음의 백신, 그림책 테라피'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 마음의 백신, 그림책 테라피'는 그림책의 가치를 알고, 다양한 시선으로 그림책을 깊게 읽음으로써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심신을 위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강의는 그림책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총 9차시로 운영되며, 10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정당한 나의 모습 들여다보기(방안 아가씨) ▲나에게 걸어가는 길(방구쟁이 며느리)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의 지혜(엄마 마중) ▲부모의 가르침(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 ▲그림책과 함께하는 비주얼 리터러시&그림책 테라피 등이다. 한편 6회 이상 교육에 참여하면 그림책을 선물로 증정한다. 조창근 관장은 "그림책이 주는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삶과 육체에 지친 주민들이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정성이 가득... 함께하는 쌀나눔

전북농협·고향주부모임·농가주부모임, 직접 300여가구 방문 전달키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고향주부모임 모임 전북도지회(회장 정명숙),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회장 이경자)는 농협전북본부에서 '정성가득 쌀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코로나19로 가족의 방문과 주변의 관심이 멀어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농민들이 정성들여 수확한 쌀을 고향주부모임·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직접 300여 가구를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정명숙·이경자 회장은 "쌀 나눔행사를 통해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어려운 이웃들의 소외감이 덜어졌으면 좋겠다"며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응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지역사회에서 아름다운 봉사를 실천하는 고향주·농가주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전북농협은 계속 함께 할 것이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향주부모임 전북도지회와 (사)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과 농번기 종식봉사, 소외계층 밀반찬 나눔봉사,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농번기 농촌일손돕기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등 ESG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윤성기자



농어촌소 전주완주읍실지사, 어두저수지 환경정화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읍실지사(지사장 이종화는)는 14일 완주군 상판면 어두저수지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화활동은 최근 어두저수지에서 불법남기행위로 인한 쓰레기 투기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진행됐다. 직원들은 저수지 주변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와 부유물 약 500kg을 수거하고, 불법남기행위와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계도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무단으로 야적된 퇴비를 반출하고, 인근 농민들에게 퇴비 위 기피막 설치를 권고하는 등 홍보활동도 함께 펼쳤다. 농경지 주변에 무단으로 야적되어 있는 퇴비는 강우 시 비점오염원으로 저수지에 유입돼 수질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주완주읍실지사 관계자는 "최근 농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대응단계가 주의단계로 상향조정에 따라 AI 특별방역대책으로 저수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 14개소에 대한 야생조류 도래현황 및 폐사체를 매주 파악하는 예방 활동을 시작했다"며 "답수가 끝난 후에도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완주읍실지사는 환경정화활동 등 저수지 수질 관리 이외에도 저수지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부안미술심리상담소 박철현 소장·파란곳간김서연 대표 마스크 2만 7000장 기탁

14일 부안군청을 방문한 한국평생교육문화원, 부안미술심리상담소 박철현 대표와 청년공동체 파란곳간 김서연 대표가 마스크 2만 7,000장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한 박철현 대표는 부안미술심리상담소를 통해 심리적 갈등 부분과 복잡한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상담사를 다수 배출하고 있으며, 하서면 노곡마을을 하는 호수체험펜션 등을 운영하며 부안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부안군 근농안재육성재단에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다. 특히 청년공동체 파란곳간 김서연 대표는 부안 청년



들이 영상, 사진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지역에 관련된 영상물을 제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재능 개발 등 귀농귀촌·경력단절 여성들의 능력 계발을 위한 활동을 펼치며 부안 지역 청년공동체를 이끌고 있다는 것. 박철현 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서연 부안군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잊지 않고 돌아봐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마스크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대, 안산경찰서와 전동킥보드 캠페인 실시

전주대학교는 지난 13일 총학생회 주관으로 안산경찰서와 함께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지자체와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 후, 자체적으로 동영상 카드뉴스,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부과 사항과 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이러한 홍보 활동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교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로 인한 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해 전주대 총학생회는 안전한 캠페인 조성을 위해 캠페인에 나섰다. 캠페인에 참여한 안산경찰서 운영진 경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사고 시 신체를 보호해 줄 것이 없어 크게 다치기가 쉬우니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이용 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드론축구단, 전국 대회서 우승·준우승 '두각'

우석대학교 LINC+사업단 소속 드론축구단이 창단 1년 만에 대항부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학 드론축구단은 최근 전주에서 열린 '제2회 한국대학드론축구대회' 우승에 이어 경북 포항 직업전문학교에서 개최된 '제4회 세계일보 전국드론축구대회'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제2회 한국대학드론축구대회'는 전국 19개 대학에서 2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예선리그와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석대 드론축구단은 전년도 우승팀인 전주대 팀과 한국교통대 팀 등을 차례로 꺾고 당당히 대회 우승컵을 들



어울렸다. 우석대학교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어 '제4회 세계일보 전국드론축구대회' 3부 리그에 출전해 드론로봇 고등학교에 아쉽게 석패하며 준우승을 했다. 지난해 8월 창단한 우석대학교 드론축구단은 현재 이한규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안홍진 감독과 김갑중 코치, 김나연(군사학과 3년) 선수 겸 단장과 20여 명의 선수가 무용관 전용 연습장에서 실력을 쌓고 있다. 남천현 총장은 "신종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축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경찰, 사회적 약자보호 관련 '이색' 홍보 펼쳐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 경무과장(경정 원성만)은 14일 관내 커피숍 미안커피와 협업,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스토킹법' 처벌법과 '사회적약자' 보호관련 문구를 테이크아웃 컵 외부에 활용한 이색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남원경찰서와 관내 커피숍이 협업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커피숍 안보다 테이크아웃 수요인원이 많은 것을 감안한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유도 및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어 홍보 효과가 보다 더 기대된다. 이동민 서장은 협업한 커피숍 미안커피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www.jmaeil.com		2021년 11월 25일 등록(제2기)	
전주매일		(주)전주매일신문사 우.스.구 7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82-3886	임실지사 010-9842-2725
삼천지사 010-2338-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16-1227	진안지사 433-3084
사산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82-0985	정읍지사 536-3787
호치지사 010-6845-9866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고산지사 010-6789-008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8
	익산지사 688-9923	고창지사 6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사내방
▲박형배 전주 부시장